



권순정(희망세상 독자편집위원)



탁형근(27·국제무역학 전공)



심성민(26·행정학 전공)

## 20대에게 묻다 - 민주화? 민주주의?

▣ 진행 : 권순정(희망세상 독자편집위원)

▣ 참가자 : 탁형근, 심성민, 채현규, 김수연, 문화주 민주나래 2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학생 지원활동가)

“한동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20대 개X끼론’이라는 게 있다. 문자 그대로, ‘요즘 것들 못쓰겠어’의 2010년 대한민국 버전이다. 촛불시위에 교복 입은 애들보다 대학생 보기가 더 힘들더라, 20대가 투표를 안 하니 나라 꼴이 어찌고, 부모 등에 업혀 제 손으로는 할 줄 아는

것 없는 철부지들, 학점 딸 줄은 알아도 세상물정을 모르는 애들이라고 한다.

20대에게 김예슬 선언은 복합적인 문제 덩어리였다. 김예슬의 용기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그녀가 옳다면 그녀가 비판하는 트랙 위에 올라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채현규(21 · 화공생명공학 전공)



김수연(23 · 교육학, 경제학 전공)



문화주(25 · 철학, 정치외교학 전공)

가는 나는 뭐지? 그럼 나를 부정해야 하나?...”(씨네21, 2010. 10. 21 ‘그러니까 이것이 청춘이라고’, 이다혜)

우리 사회는 20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20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까? 과연 20대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일까? 오해일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무엇이 원 인일까?

현재 젊은 층, 소위 20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모습이 많다. 어떤 이들은 20대가 생각 혹은 개념이 없다 평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자기개발에 힘쓰는 이들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혹자는 젊은 층이 점점 ‘보수화’ 되어 간다고도 한다. 아마도 어떤 관

점에서 20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평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쩌면 이 모든 평가들이 20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 세대 중심의 시각으로 20대를 논하기 전에, 이들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지.

지난달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미래 2기 탁형근, 심성민, 채현규, 김수연, 문화주 씨를 만났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그리고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이곳 사업회에 모인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지한 고민’, ‘유쾌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된’ 이해였다.

희망세상 100호 특집! 100호를 시작으로 ‘영(young)’ 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며 이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본다.

### 우리는 우리사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20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한국사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 사회의 강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고 하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바로 ‘확 불타올랐다가 금세 꺼지는’ 국민성이었다.

“장단점이 그냥 딱 하나 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루기 쉬운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불을 한 번 딱 집히면 사람들이 와 왔다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 쪽에서 이견 아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쉽게 세뇌돼서 또 확 수그러들었다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의 힘에 의해서 대중이 좌지우지 되는 게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 있지만 쉽게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인 것 같아요...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는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투쟁을 기억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랬던 기억들을 까먹고 당시의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민주주의 중요성 이야기하다가 또 까먹고...”(탁형근)

이러한 응집력이 한국의 발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는 모두 이의가 없는 것 같았다. 다만 형근 씨의 말처럼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이러한 화끈한 움직임의 불씨가 건망증을 낳았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경쟁’이 팽배한 사회였다. 수연 씨는 어디선가 한국 사회가 빠른 발전을 이룬 국가이나 결코 부러운 국가는 아니라는 말을 들을 적이 있다고 하며 경쟁 위주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꼬집었다.

“저는 별로 강점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와서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혹시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1호선, 2호선을. 그것을 몇 년 동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웬지 모르게 경쟁의식이나 빨리 가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뭔가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문화주)

이러한 경쟁, 성급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성민 씨는 이 부분을 역사적인 경험으로 지목하며 한국 사람들의 패배 의식과 의존성의 문제로 정리했다. 결국 오랜 식민지의 경험과 전쟁 등으로 한국 사람들은 패배 의식과 살아남기 위한 성급함을 키웠고, 이후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대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민주나래 2기 친구들은 정경유착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학생들 속에서 경험했던 총학생회 선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사회전체적인 민주주의

무관심이 결국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반영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예비역’ 선배로 학교를 다닌 성민 씨, 형근 씨는 학생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회의 성격 그리고 실제 학생회가 하는 역할 등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기에 민주화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연 씨는 바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자신도 사업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을 향해서 갈 수는 있다!**

민주주의? 민주화?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 사업회에서 주관했던 민주주의 UCC 공모전이 생각났고, 바로 사이트를 찾았다. 여기서 본 많은 대학생들의 기발한 한 마디들!!

“민주주의는 스킨로션이다; 민주주의는 현혈이다; 민주주의는 레포트다; 민주주의는 가족이다; 민주주의는 미소다; 민주주의는 청소기다; 민주주의는 노래방 마이크다; 민주주의는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종이학 천마리다; 민주주의는 안경이다; 민주주의는 약이다; 민주주의는 핸드폰이다; 민주주의는 집이다; 민주주의는 씨앗이다.”

사업회에서 약 1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이들은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을까? 기발하면서도 진지하겠지?

내심 기대했다. 역시나 민주나라 2기 친구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찔렀다.

“민주주의는 정치다. 한국에서는 정치라고 하면 무언가 의도가 있고 안 좋고...이렇게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정치성을 다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 것 같고.”(문화주)

“민주주의는 특별해서는 안 되는 것. 바꿔 말하면 굉장히 당연한 것!...굳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해요.”(김수연)

“민주주의는 절대 완벽할 수는 없다!...완벽을 향해서 갈 수는 있지만...”(채현규)

### **우리는 사업회를 ‘이렇게’ 경험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 이 속에서 이들은 사업회를 자신들의 자원봉사활동지로 선택했다. 이미 다른 활동을 통해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화주 씨도 있고,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된 형근, 성민 씨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쓱~ 손 내밀었던 현규, 수연 씨도 있다. 자신들이 선택한 이곳에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또 사업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현규 씨, 수연 씨, 성민 씨, 시민단체인 줄 알았다는 형근 씨 그리고 화주 씨.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막상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회에서 자원봉사자 학생들에게 배려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기관이 정부기관이어서 딱딱한 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또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민주화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교육하고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채롭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심성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 대해 묻자, 이어진 대답은 바로 사업회에 계신 분들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이었다. 이런 따뜻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들은 사업회 자체에서 민주주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등한 집단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 여기가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니까 뭔가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돼서 주로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 그렇게.. 학술적이고 뭔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즘의 대학생들 그리고 요즘의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였어요. 민주화라는 주제가 그렇게 편안한 주제는 아닌데, 평범하고 편안하고 개방적인 것 같아서 신기했죠...”(문화주)

20대 친구들이 ‘빨갱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색채란 무엇일까?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어쩌면 색채가 짙은 말일 수도 있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온 수연 씨나 형규 씨도 자연스럽게 색채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다.

“저도 처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이름만 듣고 특히나 민주화 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을 때 2~30대를 보냈던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니까 어떤 색채가 짙은 단체가 아니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너의 생각이 뭐냐,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건가?’ 생각했었는데, 기초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기 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민주 의식이라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뜻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웃음).”(김수연)

##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직업, 그리고 생활을 생각했을 때, 민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투표 잘 해요’는 기본으로 하고 생각해 보자고 하자, 아마 더 어려웠을까?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어쩌면 가장 진실될 수 있는 답이 처음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자신이 ‘현실과 타협’ 하게 될 것 같고 이미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형근 씨의 자기 고백이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었는데도 모르고 또 20대들이 그 동안 경험해 오고 봐왔던 사회의 모습이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고, 현재 없다면 곧 그런 고민에 빠져들 수도 있는 2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우



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현규 씨, 회사에 입사한 성민 씨는 ‘삶의 방식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소통’에 힘쓰며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 농사를 짓고 싶다는 화주 씨. 농촌으로 가 농사를 지으며 환경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활동을 통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가깝게는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공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작은 약속을 했다. 마지막으로 수연 씨는 사회과 교사가 된다면 교과서 내용 외에 숨어 있는 사실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한국에서는 유독 좀 싸구려(?) 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흔한 그런 게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흔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전 선배 세대들

이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추억이나 그런 걸로만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뭔가 접근하려면 뭘 알아야 되고 하는 약간 그런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할 때 그런 장벽을 가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문화주)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 사회가 아직 민주주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사업회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Cal*